[ 1 롤링 페이퍼 ]

“…롤링 페이퍼가 어떨까요?”

“세계사 선생님도 저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롤링 페이퍼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. 제일 괜찮아 보여요.”

“좋네. 선생님들 퇴직하실 때 많이들 드리는 선물이고. 괜찮을 것 같아.”

“그럼,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?”

“준비요?”

“응. 어떻게 롤링 페이퍼를 꾸밀지, 일정은 어떻게 할지 말이야.”

“어. 그냥 되는 대로 할 생각이었는데요.”

“…되는 대로?”

은혜 선배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.

“네. 그냥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내려고요.”

“그러다가 망쳐버리면?”

“좀 혼나면 되지 않을까요?”

“…후우. 후후.”

한숨처럼 들리는 웃음소리가 은혜 선배 입에서 새어 나왔다.

“후배. 어떤 일을 해도 말이야. 최악을 상정하고 하는 게 중요해.”

“혹시라도 이번 일을 망쳤다가 혼나는 선에서 안 끝날 수도 있어.”

“내신이 깎일 수도 있고,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.”

“선생님이 그렇게까지는 할까요?”

“모르지. 후배가 망친 롤링 페이퍼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?”

“만약에 후배가 혼자 글씨 바꿔가면서 쓴 롤링 페이퍼라도 가져가면 나라도 그럴 것 같은걸?”

…다행이다. 생각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진 않아서.

“그러니 최악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아.”

은혜 선배는 그리고선 책상에 놓인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.

“롤링 페이퍼로 쓸 도화지는 이만한 크기가 좋겠다. 위에는 선물 받는 선생님 성함을 살짝 크게 넣고. 글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옆에 사진도 붙여야겠네.”

“도화지 밑그림은 내가. 후배는 수요일 전까지 애들한테 글을 적게 한 다음, 마무리하고 제출.”

“간단하게 짜봤는데 어때?”

1분도 안 걸려서 완성된 롤링 페이퍼 계획은 더 손댈 것도 없이 완벽해 보였다.

“…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?”

“후후. 그래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.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.”

은혜 선배의 말에 계획표를 다시 읽어봤다.

도화지 준비는 은혜 선배가. 나는 수요일 전까지 글 적게 하기. 마무리하고 제출.

지금 계획에서 문제 생길 게 있을까?

…아.

가장 큰 문제를 잊고 있었다.

[ 수요일 전까지 글 적게 하기 ]

롤링 페이퍼를 가득 채울 만큼, 다른 애들한테 글을 받아야 한다?

다른 반에 친구는커녕, 같은 반에 친한 애조차 없는 내가?

“…저기, 은혜 선배.”

“응?”

“만약 제가 일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?”

“버, 벌써 포기하는 거야?”

“아뇨. 최악을 대비해서 묻는 거예요.”

“으응…. 후배가 일정을 못 지키면 일정도 다시 짜야 하고, 나도 좀 바빠지겠지?”

벌써 보인다. 아무것도 안 적힌 빈 종이를 들고, 은혜 선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….

“근데 나는 그런 걱정 안 해.”

하지만 은혜 선배는 나하곤 다르게 환하게 웃었다.

“…선배. 그래도 걱정하시는 게 좋을걸요? 저 일 하나도 못 해올 수도 있는데요.”

“후후. 만약 후배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번 일도 안 맡지 않았을까?”

“하지만 후배는 책임감 있으니까.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.”

통.

머리 위에 가볍게 얹어지는 온기와 함께 은혜 선배는 떠나갔다.

…기대하고 있다니.

은혜 선배가 책상에 놓고 간 롤링 페이퍼를 주워들었다.

선배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.

…열심히 해봐야지.